

# 지역민 폭 넓은 문화 향유... '복구, 너와 나의 울림' 개최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기원... 주민·예술가 참여 전시·학술행사 미디어파사드·전통공예 클래스·힐링 버스킹 데이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시 복구가 올해 30주년을 맞는 '제 15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이 북구 용봉동(1022-3)에 마련돼 있는만큼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 지역민들에게 폭 넓은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이 기간 비엔날레를 찾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복구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복구는 올해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복구, 너와 나의 울림'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자체사업 10개 분야와 연계사업

4개 분야, 지원사업 7개 분야로 구성된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자체사업으로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전시 및 문화행사가 이뤄진다.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마다 행사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부끄&부부', '복구8경' 등 복구 제작 작품전과 인디밴드와 퓨전국악, 인형극 등 무대 공연, 친환경 가방과 비누세제 만들기 문화체험, 에어바운스, 포토존 등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경험해볼 수 있다.

10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서 전통문화 체험 마당도 개최된다.

도자기 머그컵 만들기, 뽕화 그리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전통공예 원데이 클래스와 널뛰기 등 민속 놀이와 전통복식을 입어보고 다식을 만들어볼 수 있는 전통 체험도 마련돼 있다.

복구청 갤러리와 자미갤러리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비엔날레 특별기획전으로 서양화, 한국화, 웹툰, 수채화 등 다양한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12월까지 중외공원과 양산호수공원 등에서 팝페라, 클래식 등의 공연이 열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힐링 버스킹 데이'가 이뤄진다.

본격 비엔날레 전시가 이뤄지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비엔날레 광장 곳곳에 복구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가 설치된다. '비엔날레 플레이 애니멀'을 주제로 하는 게임형 증강현실 체험과 복구 8

경 컬링링 엮어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찾아가는 마을 놀터 프로그램(9월-11월)을 통해 놀이 전문가와 전래놀이(죽방울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를 즐겨볼 수도 있다.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비엔날레로에는 가을 꽃 화분을 전시해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메리골드, 사루비아, 천일홍, 페튜니아 등을 식재해 관람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복구 자활사업단의 제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복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10% 할인한다. 또 같은 조건으로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에는 복구지역 일반·휴게 음식점 음식 요금을 10% 깎아준다.

무엇보다 주민이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건국동의 건국다복채움기재단은 비엔날레 방문 후 관람객 인터뷰 등 취재를 통해 '다복채움 마을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복구를 알리기 위해 비엔날레 방문에 앞서 행사장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와 불법 노점상 도로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행사장 주변 생활쓰레기 및 불법투기 쓰레기 청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 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다음달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열린다. 본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양림동 일대 9개소에서, 파빌리온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외 23개소에서 펼쳐진다. 총 30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아날로그 감성... 남구 '시간우체국' 9월 첫 삽

### 2025년 완공 목표... 구도심 사적동 활성화 관광명소 기대

광주시 남구는 '시간우체국' 건립을 위해 다음달 첫삽을 뜨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남구는 지역 관광 명소 개발을 위해 사적동에 조성하는 '시간우체국'을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시간우체국은 연면적 2085㎡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내부 공간은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고 1층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3층까지 개방된 형태로 꾸며, 외국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를 들게한다는 것이 남구의 목표다.

이와 함께 우편물을 최대 100년까지 보관·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인들의 편지를 관

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전시와 체험도 마련한다.

지하 공간에는 '7080살롱'과 젊은 세대를 위한 'MZ살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DJ 박스'가 조성돼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내부 곳곳에 고성능 음향시설을 설치해 목재 건물 전체에 사운드가 울려파지도록 한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는 시간우체국을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구도심인 사적동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시간우체국이 문화와 예술, 아날로그 감성, 사람까지 아우른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적동 시간우체국 조감도 <광주시 남구 제공>

한편 남구는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인근에 통기타·국악살롱과 아날로그 사진관, 수장고·기념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살롱 드 사적 프로젝트'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들불홀에서 지난 20일 열린 장사의 신 특강에서 지역소상공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 서구 소상공인들 '장사의 신 아카데미' 2기 모집

### 9~11월 운영, 30일까지 모집

광주시 서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사의 신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장사의 신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0명 한정이다. 아카데미는 9월 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소상공인들의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강의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해 '가치를 만들고 매

출을 올리는 장사의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제2기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 및 매출증대 전략 및 홍보마케팅 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는 1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사로 나선 김유진 컨설턴트는 이번 강의에서 단골고객 만들기, 매출상승 비법 등 수년간 경험을 통해 쌓은 자신만의 장사비법을 공유했다. 서구는 오는 11월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 증대 전략'을 주제로 또 한 번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 행안부 공개 경영평가 '라' 등급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로 낙제점을 받은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던 생활폐기물 처리 민원 당일 수거제를 정착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자체 운영시스템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등 직원들간 원활한 소통을 우선으로 노사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도 완료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7일 행안부가 공개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난해 실적)'에서 '라' 등급을 받아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42곳 가운데 41위인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공단이 전국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해 공단 내에 발생한 부조리 등

각종 비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비위가 불거진 것은 경영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의 낙하산식 임명에 따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인사권자가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다 보니 조직 장악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위행위가 불거지자 당시 이사장은 임기를 7개월 가량 남겨 두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잔여 임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임 임명일 이사장이 임명됨에 따라 조직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임이사장은 연봉 삭감 등 최악의 경우 인사조치까지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평가에 따라 공단은 경영개선이 시급한 공기업으로 분류 돼 별도의 경영진단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난 12일자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6대 이사장으로 임명일 이사장을 재임용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6일 취임한 임명일 이사장의 경우 이번 경영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7개월 임기 동안 '신바람 나는 공단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단 1건의 비위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동구, 故 문병란 시인 집에서 '동시야, 뭐해?...' 진행

광주시 동구는 최근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 '동시야, 뭐해? 나 왔어!'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야, 그림야, 함께 놀자'에 이은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총 세차례(9·13·14일, 회당 7명) 진행됐다.

프로그램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향숙·문봄·안오일·이옥근·이지담·진현정·성명진 등 시인 7명의 동시집을 선정하고, 작품 한편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아이들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 시를 해석해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동시 작가들도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작품에 대해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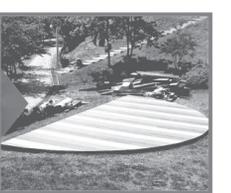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